



일상에 불러올 마법

피아니스트 탁영아

미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탁영아가 오랜만에 한국 관객을 만난다. 모차르트와 슈만, 미국의 작곡가 주디스 제이몬트(1945~)와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음악 여행을 준비했다. “한국 방문도, 대면 공연도 쉽지 않던 시간을 거쳐야 했기에 이번 독주회는 더욱 마법 같다”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의 많은 공연장이 문을 닫았다. 연주 활동에 타격이 컸을 텐데.

음악으로 청중과 대화할 기회가 단절되니 음악가로서의 방향성을 상실한 듯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공연에 참여하며 다시 힘을 얻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온라인 공연은 지난해 8월 스승이신 레온 플라이셔(1928~2020) 추모 음악회다. 세계 곳곳에 있던 제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 연주와 함께 토크가 진행됐는데, 각자가 가진 스승과의 추억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또, 미국의 저명한 피아노 음악 축제인 ‘아트 오브 더 피아노’에 초청돼 온라인 리사이틀을 연 것도 특별했다. 오는 7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리사이틀에서는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K397, 슈만 판타지 Op.17, 주디스 제이몬트 ‘Wizards-Three Magic Masters’,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까지 네 작품을 선보인다. 관객이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

에 빠져볼 수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와 슈만으로 채워지는 1부는 ‘환상곡’을 주제로 한다. 2부 제이몬트의 작품은 ‘Three Magic Masters’라는 제목처럼 세 마법사의 각기 다른 성격을 표현한다. ‘환상곡’처럼 신비한 음색이 가득한 곡이다. 프로그램의 끝을 장식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은 내 음악 인생을 반추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디스 제이몬트와의 인연이 궁금하다. 2005년 그의 작품들로 구성된 음반(Albany Records)을 발매하기도 했는데.

‘Wizards-Three Magic Masters’는 2003년 산 안토니오 피아노 콩쿠르의 위촉으로 탄생한 곡이다. 당시 콩쿠르 준결승 진출자들은 이 곡을 연주해야 했는데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작곡가는 모든 이의 연주를 지켜봤다. 콩쿠르 이후 작곡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리코딩을 의뢰해온 것이다! 녹음을 준비하며 제이몬트의 집에서 머물렀고 함께 곡을 연구했다. 작곡가의 의도와 생각을 직접 들으며 연주로 옮기는 과정은 내 음악적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경험으로 현대음악을 향한 관심도 고취되었을 것 같다.

동시대 작곡가에 대한 관심은 연주자의 책임이다. 박사학위 논문도 레온 커슈너(1919~2009)의 곡에 관해 썼다. 미국에서는 특히 ‘다양성’이 음악계의 중요한 화두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을 발굴 및 조명하는 자리가 활성화돼 있다. 현재 재직 중인

뉴욕주립대 음대에서도 21세기 작곡가나 여성 작곡가 등의 작품 연주를 장려한다.

7월 독주회 이외에 올해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가을에 동료 성악·현악과 교수들과 실내악 연주회를 연다. 첼리스트 마리 일레인 가농과의 듀오 리사이틀도 연다. 내년 3월에는 텍사스에서 열리는 음악제 ‘피아노 셀레브레이션 워크’에 메인 연주자로 초청돼 독주회와 마스터클래스를 갖는다. 또, 스타인웨이 앤 선스 레이블에서 또 하나의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다. 늘 음악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글 박찬미 기자 사진 마스트미디어

탁영아는 예원학교·서울예고·줄리아드 음악원을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와 디플로마를 취득했다. 이후 피바디 음대에서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를 사사했다. 현재 뉴욕주립대 음대 교수, 크레인 피아노 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 아티스트로 음악계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탁영아 피아노 독주회

7월 27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모차르트 환상곡 d단조 K397, 슈만 판타지 Op.17, 주디스 제이몬트 ‘Wizards - Three Magic Masters’,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